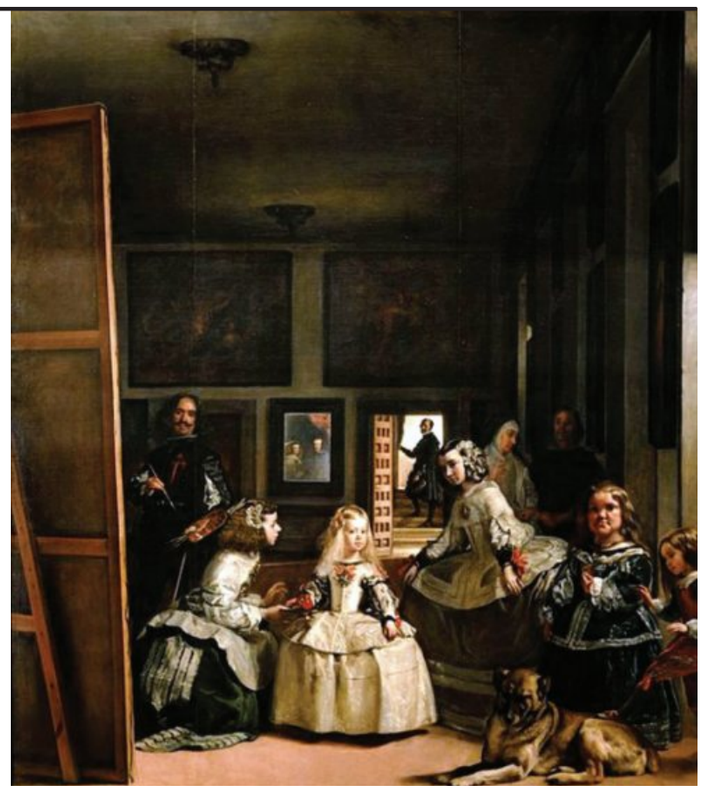
미술과 사이

의학 수학 화학 천문학 문학 음악 무용

광주시립미술관, 온라인 교육 '미술관과 학교 사이'

7월 1일~8월 12일 매주 금요일 7회 강좌
의학박사 이성낙, 피아니스트 조현영
화학자 전창림, 미술사가 홍성미 등 강연


'미술과 음악 사이'에서 라벨의 음악과 함께 만나는 벨라스케스 '시녀들'

'우리가 그림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

피아니스트는 작곡가 라벨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와 벨라스케스의 그림 '시녀들'을 함께 보여주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화학자는 뭉크의 '절규' 속 다채로운 색채에 대해 흥미로운 스토리를 들려준다. 의사의 시각으로 바라본 조선시대 선비의 초상화는 어떤 의미 일까, 천문학으로 새롭게 읽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선사하는 감흥은 무엇일까.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시대나 작가별로 구분해 살펴보기도 하고, 주제를 정해 관련 예술작품을 집중 소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경제학, 의학, 물리학 등 얼핏 예술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관점'에서 그림을 바라보는 경우가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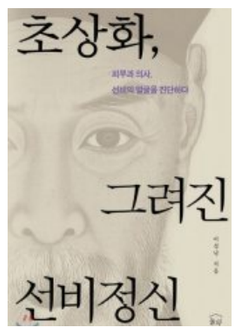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진행하는 온라인 청소년 강좌 '미술관과 학교 사이'는 의학, 수학, 화학, 천문학, 문학, 음악, 무용 등 다양한 분야와 미술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키워주는 기획이다. 청소년 뿐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어른들에게도 더 없이 흥미로운 강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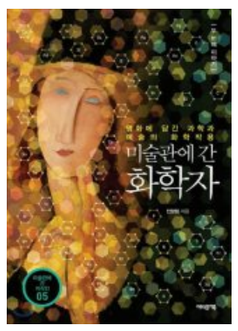
강의는 각 분야 전문가가 맡는다. 강사들이 출간한 관련 책자를 함께 읽는다면 더 알찬 강의를 즐길 수 있다. 강의는 7월1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들을 수 있으며 게재 이후 1개월 수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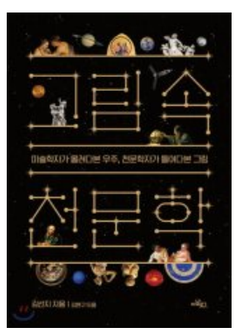
첫 번째 '미술과 의학 사이'는 500년간 이어진 '조선시대 초상화'가 갖고 있는 의미와 시대정신을 의학이라는 시각으로 풀어본 강의다. 피부과 전문의인 이성낙은 명지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 병변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초상화, 그려진 선비정신'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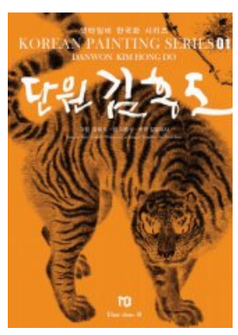
'수학'을 매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는 홍성미(전남대 미술학과 강사) 미술사가다. 전남대에서 수학을 전공한 그는 서양미술사로 대학원에 입학한 후 한국미술사로 명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수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학과 예술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는 '수학과 그림 사이-수의 역사부터 함수까지, 그림이 들려주는 수학이야기'를 펴냈다.

'미술과 화학 사이'는 전창림 화학자가 진행한다. '미술관에 간 화학자' 시리즈로 유명한 그는 홍익대 교수로 재직하며 바이오화학공학과에서는 고분자화학을, 미술대에서는 색채학을 강의했다. 명화에 담긴 과학과 예술의 화학작용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과학과 미술이 만나는 접점을 보여준다. '인상파'는 그 자체가 과학이었고, 미술을 통해 과학기술도 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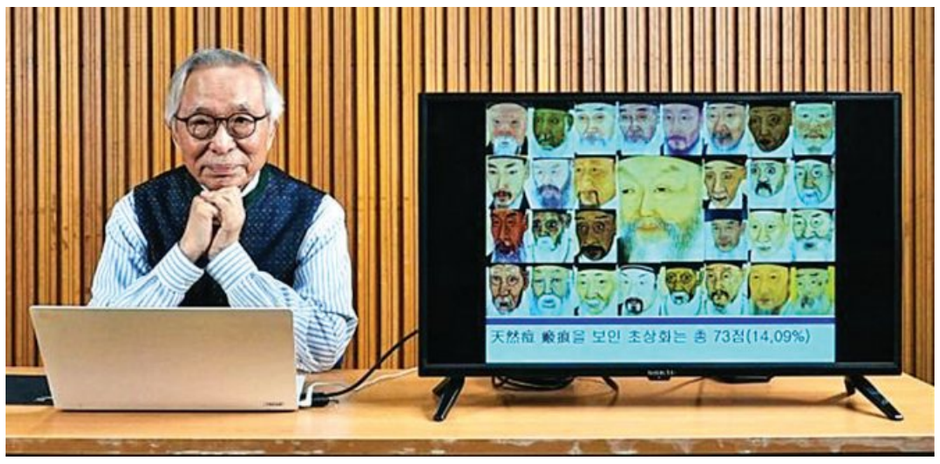






'미술과 문학 사이'는 우리 옛 그림과 문학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김홍도의 '서원아집도', 정선의 그림과 이병연의 시가 어우러진 '경교명승첩'을 함께 읽으며 그림을 감상한다. 고려대에서 국문학을, 명지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한 이종수 강사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마-꿈과 삶을 그린 우리 그림 보물 상자' 등을 펴냈다.

'우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이라 이야기하는 '미술과 천문학 사이'는 명화 속에 나타난 천문학적 요소와 밤하늘의 별을 그린 화가들의 작품에 숨겨진 스토리를 만난다.



'미술관과 학교 사이'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연자 이성낙 의학박사.

김선지 미술사가는 라파엘로와 페르메이르, 고흐의 붓끝에서 재탄생한 별과 신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화여대에서 역사를, 동대학원에서 미술사와 현대미술을 공부한 그는 천문학자인 남편 김현구 박사와 함께 '그림 속 천문학'을 출간했다.

광주일보에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를 연재하기도했던 피아니스트 조현영(아트앤소울 대표)은 '미술과 음악 사이'를 주제로 강연한다.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봄)'와 비발디의 '사계', 김환기의 '월광'과 베토벤의 '월광', 모네의 '루앙, 대성당 시리즈'와 드뷔시의 '달빛', 들라크루아의 '쇼팽과 조르주 상드'와 쇼팽의 음악 등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현재 네이버 오디오클럽과 팟빵에서 '조현영의 올 어바웃 클래식'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연주와 강연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의 기분과 매일의 클래식' 등을 집필했다.

마지막 강의는 '무용'이다. 이찬주 무용 이론가(이찬주 춤자료관장)가 즐거움과 자유로움의 상징인 '춤'이 화가들의 붓끝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살펴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현재의 '민중미술'과 미래 방향성

'다면체 미로 속의 진동'전, 30일~8월15일 ACC

30일, 민중미술 미래 모색 대담회도

현대 리얼리즘계열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토대로 민중미술의 어제와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실의 사회 문제를 녹여낸 38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오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ACC 복합전시 5관에서 민중미술 특별전을 연다.

'다면체 미로 속의 진동'이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이번 전시는 민중미술의 현주소는 물론 미래의 방향성까지 아우른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되데 1부는 아카이브전, 2부는 동시대 작가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1부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모티브에 따라 정치적인 주제를 표현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지난 1980~1990년대 반독재 민주화, 통일 운동 등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기존 민중미술의 고민을 담아낸 개념적인 성향의 포스트 민중 미술 작품도 포함돼 있다.

오윤 작 '낮도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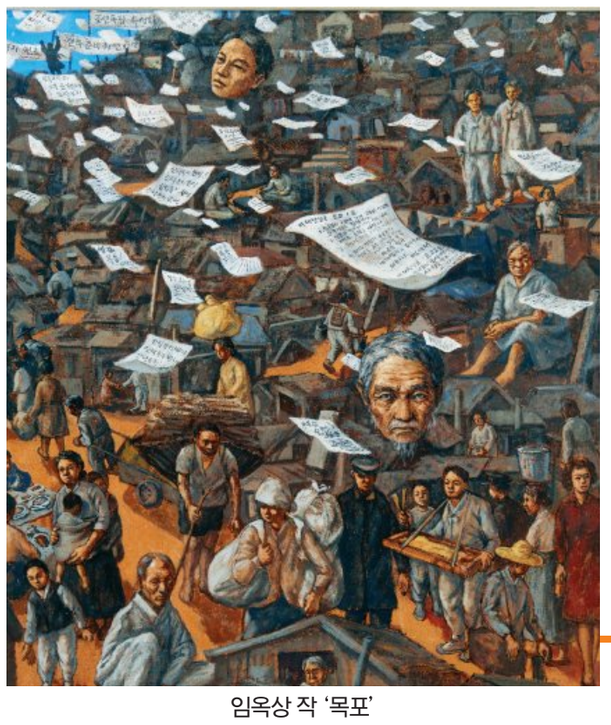
신학철의 '한국근대사-5'을 비롯해 오윤의 '낮도깨비', 강연균의 '장군의 초상', 홍성담의 '북춤', 임옥상의 '목포' 등 10명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현실과 환상 사이'를 주제로 구성된 2부는 지난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변화와 맞물린 현실 문제가 반영된 작품을 다룬다. 환경오염과 전쟁, 도시 환경, 이주 노동자, 감시사회 등 오늘의 복잡다단한 양상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임용현의 '모든 것이 더 흐릿하다', 노현탁의 '미키버니언', 류성실의 'BJ 체리장', 이진경의 '몽유도원 2022', 나현의 '로렐라이의 노래' 등 12명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편 ACC는 특별전 개막식 부대행사로 민중미술 미래를 모색하는 대담회도 준비했다. 오는 30일(오후 3시 30분) 복합전시 5관에서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새로운 길찾기'를 주제로 하는 대담회가 그것.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장이 발제를 하고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와 문희영 예술공간 집 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확인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옥상 작 '목포'

팝페라 앙상블 레디스 '미술관 속 음악회'

30일 '김냇과 아트 콘서트'

한달에 한 번 열리는 김냇과 아트 콘서트는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클래식 무대다. 공간 내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살려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김냇과 아트 콘서트' 6월 공연이 오는 30일 오후 7시 광주문화공원 김냇과 2층(대인동 52-2)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팝페라 앙상블 레디스가 무대를 꾸민다. 리더를 맡고 있는 소프라노 김아람(성악연구실 아틀리에 대표), 단원 소프라노 최연선(익산시립합창단 상임단원), 바이올리니스트 문희연(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이 참여한다.

공연 레퍼토리는 가요, 클래식, 팝송 등 다양하다. '아름다운 나라', '꽃밭에서', '사랑의 인사'.

김아람

최연선

'베토벤 바이러스', '신호등', '푸니큘리 푸니큘라', 'We are the champon' 등을 만날 수 있다.

티켓 1만원, 커피 무료 제공.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올해 꽃들은 '평화!' 하고 핀다'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28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평화를 노래하는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이하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이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꽃들은 '평화!' 하고 핀다'를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온·오프라인 콘서트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김원중과 광주청년뮤지션으로 구성된 박성언밴드가 참여해 '나 이제 노래를 부르리라', '직녀에게' 등 평화를 얘기하는 다양한 노래를 들려 줄 예정이다.

또 초대손님으로 영화와 TV 드라마, 라디오 방송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출신 봉만대 영화감독이 출연한다. 봉 감독은 영화와 연기, 작사, 노래, 예능 뿐만 아니라 건강한 빵을 구워 꿈을 나누는 비영리민간단체 '꿈베이커리'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봉만대

이밖에 느티나무 밴드·소프라노 유형민·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주홍·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리디안팩토리·우물안개구리·프롤로그·여울·음악노동자 이진우가 참여하고 화가 한희원을 비롯한 지역 미술인 등이 함께한다.

한편, 2003년 시작한 '김원중의 달거리'는 지역의 아티스트와 청년음악인들의 무대를 매달 선보이고 있으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평화콘서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의 010-3670-580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